

## 탄소감축 잠재력 큰 중남미와 손잡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등과 탄소감축 위한 산림복원 추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등 중남미 국가에 한국의 선진 산림복원 기술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 원조국이 재정 자금을 공여하는 공익목적의 원조

산림청은 중앙아메리카의 건조회랑 지역(Dry Corridor)에 속하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의 황폐지 산림복원과 지속가능한 혼농임업 정착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해 왔다.

중미 국가 중 가장 먼저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이 추진된 온두라스와는 2023년부터 혼농임업과 산림경관 복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램파(Lempa)강 일대의 산불발생 및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해 방화수립대를 조성하고 혼농임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성능 산불진화 장비 지원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산림이 원주민의 주요 생계 수단인 과테말라에는 산림복원, 양묘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역량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남미국가인 가이아나에서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해안가 침식방지를 위해 약 120ha 규모의 맹그로브 숲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에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마하이카 해변 맹그로브 숲은 해일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어업·농업분야에서 주민 생계활동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25년간 112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춰 우리나라 국외탄소감축 및 배출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산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라며, “한국의 선진 산림기술을 활용해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국제산림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이현주 (042-481-4176)
		담당자	서기관	이상협 (042-481-4277)
			사무관	조민정 (042-481-4081)

